

濟州島 神堂의 形態

文 武 秉*

I. 堂의 分布

『東國與地勝覽』 濟州牧 風俗條에 보면,

濟州 風俗에 대체로 산·숲·냇물·연못·언덕·물가·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다 고루 神堂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격(巫覡)이 신독(神籙)을 받들고 나희(難戲)를 행한다. 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여 동리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놓아 굿을 한다.¹⁾

俗尙陰祀乃於山蔽川池邱陵墳衍木石 具設神祀 每自元日至上元 巫覡共擎神籙 作難戲 鍾鼓前導 出入閭閻民爭損財穀以祭之

당은 산·숲·냇물·연못·언덕·물가·평지의 나무 돌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당이 있는 곳은 『東國與地勝覽』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丘陵·田畚·川邊·樹林·巖窟·海邊 등에 있음을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1) 丘陵型(동산형)

丘陵型은 마을 부근에 있는 ‘당오름’ ‘당동산’과 같은 당산 기슭에 있거나 마을에서는 조금 높은 지역인 ‘마루(丘)’에 있다.

丘陵型 → 山 → 男神 → 狩獵·牧畜神의 堂

田畚型 → 女神 → 農耕·產育神의 堂

(2) 田畚型

당이 田畚間 또는 田畚內 조금 높은 동산에 있다. 田畚型의 堂은 農耕神이며 本郷堂神인 경우가 많다. 동산에는 큰 팽나무가 있고, 나무에는 고운 물색이 걸려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이곳에 좌정한 女神은 맑은 신이며, 米食神이고 개방적이다.

* 제주대 강사·민속학

1) 盧思慎 外, 『新增東國與地勝覽』 卷三十八 濟州, (明文堂, 1981), P. 662.

(3) 川邊型

川邊型(또는 泉邊型)의 당은 물이 있는 곳을 聖域으로 삼고 堂神이 좌정한 곳이다. 이 堂神은 물이 있는 곳에 '세숫물·벼룻물'이 좋아 좌정처를 정했고, 또 한라산을 내려오며 나침판을 사용하였던 점으로 보아 설촌 당시의 有識層이며 風水에 능한 지관이었던 마을의 本郷堂神으로 山神系의 堂神이다.

(4) 海邊型

바다의 신 '용왕신', '선왕신', '개로육서포' 등을 모시는 당이다. 이 당의 堂神들은 어부, 잠수들에게 개방적인 神이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천한 신으로 여긴다. '一萬 潛嫂 一萬 漁夫를 차지한 신'이기 때문에 어촌 마을 生業守護神이다. 海邊型의 당은 대부분이 '돈짓당' 또는 '개당'이라 부르는 海神堂이다.

(5) 樹林型(잡목널굴型)

非公開의이며 閉鎖된 장소에 堂이 있다. 이러한 堂은, 한 부락 안에서도 몇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여러 곳에 散在한다. 同類分散型의 당이며 '가지 갈라온 당(衆散堂)'이다. 樹林型의 堂에는 陰性的인 神, 돼지고기를 먹고 쫓겨난 不淨한 神, 도깨비나 蛇神과 같은 災殃神이 좌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6) 窟型(巖窟型)

巖窟型은 커다란 바위(窟)와 동굴 속에 堂神을 모시고 있는 堂이다. 앞의 자료에 있는 황다리窟당, 窟네킷당, 도람지窟당, 돌코릿당은 巖窟型이다. 동굴 속에 있는 당은 대부분 男神堂이다. 사냥을 하는 肉食 食性을 가진 山神이거나, 山神이지만 肉食을 不淨하다고 하며 '세숫물' '벼룻물'이 좋아 물 있는 곳에 좌정처를 정한 山神百官의 堂이다. 이때 동굴은 원초적인 神聖處로서 '물가의 동굴'이며, 아니면 수렵하며 떠돌아다니던 설촌 조상들의 혈거생활의 흔적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II. 堂의 種類

(1) 綜合型

綜合型의 堂은 마을을 수호하는 2以上の 神을 1개의 堂 안에 모시고 있는 형태의 당이다.

이러한 堂은 원래 2개 이상의 당이 따로 있었으나, 閉鎖될 사정이 되어 한 곳에 통합된 都市型 또는 都市周邊型의 당이라 할 수 있다. 都市의 中心地는 개발에 따라 堂이 파괴되고 없어지지만, 都市 周邊에는 이미 있는 本郷堂에, 없어진 당의 堂神들을 ‘가지 갈라다’ 함께 모시게 되는 까닭에 統合型의 당을 지니게 된다.

①多神合坐型

2개 이상의 당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당으로, 夫婦型이나 夫婦關係가 분명하지 않은 男神과 그 밖의 생업수호신들을 모신 당이 있고, 本郷堂神을 중심으로 各種의 당들을 가지 갈라 와서 한 곳에 모아 놓은 당도 있다.

예 1) 제주도 연동 능당
神位: 12위 좌정

②夫婦合坐型

夫婦神을 1개의 당에 함께 모시는 경우다. 山間·中山間 마을에서는 수렵·목축신인 山神과 農耕神인 ‘일뿔할망’, ‘송씨할망’, ‘축일할망’ 등이 夫婦神이 되어 좌정한다. 해촌 마을에서도 ‘돈지하르방·할망’, ‘개하르방·할망’, ‘뱃선왕(=영감신)’, ‘개로육서또’와 같은 남신(漁夫守護神)과 ‘요왕또’, ‘용녀부인’, 과 같은 여신이(海女守護神)이 夫婦처럼 함께 좌정하는 경우가 있다.

㉠同堂同坐型

‘육식금기’와 관계없이 夫婦神이 나란히 좌정하고 있는 경우다.

㉢同堂異坐型

임신중 ‘육식금기’의 파괴로 ‘不淨하다’하여 같은 당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南北 또는 東西로 자리를 나누어 좌정하는 경우다.

㉡同堂異壇型

‘육식금기’와는 관련 없지만 祭儀나 場所의 편의에 따라 같은 당에 제단만 따로하여 모시는 경우가 있다.

(2) 分離型

①異堂別居型(살림分散型)

夫婦神이 ‘육식금기’의 갈등으로 살림이 분산되어 ‘바람 위(風上): 바람 아래(風下)’로 나누어 別居하는 형태의 당으로 살림분산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夫婦神이 ‘육식금기’로 인하여 살림이 파탄나고 ‘땅 가르고 물 갈라’ 이혼까지 하게 되면, 마을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당은 살림파탄형 또는 마을분리형이라 할 수 있다.

②分堂型

마을이 分洞되면서 똑같은 당이 다시 하나 생기는 경우와 距離上의 관계로 똑같은 당을 한 마을에 다시 설비하는 경우다. 이 때도 ‘가지 갈라다 모셨다’고 한다.

③ 同類分散型

마을이 워낙 커서 같은 종류의 당이 한 마을에 2개 이상 있는 경우다. 특히 産育·皮膚病神인 일뤼당은 한 마을에 7~8개소 있는 경우도 있다.

④ 衆散型(가지 가른 型)

토산당系 일뤼당과 으드렛당, 송당계 일뤼당, 증문계 일뤼당, 호근이마루系 으드렛당, 세화리系, 현씨일월系, 기타 산신系的 당들은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면, 따로 모시고 가서 一族 또는 一家의 神上神으로 모신다. 특히 토산리 일뤼당 으드렛당은 그 分布가 전도적이다. 이러한 당을 ‘가짓당, 또는 ‘衆散堂’이라 한다. 이러한 당들은 單獨型으로 나타난다.

(3) 共有型(集中型)

여러 마을이 한개의 本郷堂을 公有하는 경우다. 즉 1위의 본향당신이 여러 마을을 수호·관장하는 형태다. 원래 한 마을이었으나, 행정적으로는 여러 마을로 분동되었는데 本郷堂神은 따로 모시지 않고 원래대로 모신다. 신앙 면에서 보면 아직도 1개 마을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本郷堂神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공동체가 存續·維持되고 있는 것이다.

(4) 單獨型

1개의 堂에 堂神이 獨坐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神格과 職能이 뚜렷한 堂이다. 本郷堂神으로 獨坐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축원당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 종류는 山神堂, 일뤼당, 송씨할망당, 서당, 축일당, 蛇神堂, 여드렛당, 도깨비당, 海神堂 등 두루 존재한다. 특히 一堂獨坐型的 堂은 女神이 홀로 좌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堂은 ‘아미당’, ‘내외당’, ‘처녀당’, ‘비바리당’ 등으로 불린다.

本郷堂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①山神(男神)이 홀로 좌정한 單獨型(산신당, 하로산당, 오일당 등), ②農耕神(女神)이 홀로 좌정한 單獨型(백주당, 일뤼당, 축일당 등), ③産育神 또는 治病神(女神)이 홀로 좌정한 單獨型(일뤼당, 축일당, 송씨할망당 등), ④山神(男神)과 産育·治病神(女神)이 夫婦神으로 함께 좌정한 同堂合坐型 또는 同堂異坐型(산신당+일뤼당, 산신당+축일당 등), ⑤山神(男神)과 産育·治病神 또는 海神(海女守護神)이 夫婦지만 따로 좌정하고 있는 異堂別居型(산신당-일뤼당, 산신당-축일당, 산신당-해신당 등), ⑥山神(男神)과 産育·治病神(女神)이 부부로 합좌한 데, 다른 신들이 함께 좌정한 合神合坐型, ⑦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본향당신으로 모시고 있는 共有型 또는 一堂集中型, ⑧본향당신이 좌정한 자리에 다른 신들을 제단만 따로하여 모시고 있는 同堂異壇型, ⑨海神 ‘돈지하르당·할망’을 夫婦처럼 모시고 있는

夫婦合坐型, ⑩蛇神(女神), 도깨비(男神), 처녀원령을 본향당신으로 모신 單獨型 등이다. 그리고 本郷堂神은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모셔가게 되면, 가짓당(個別祝願堂)이 되는 것이다.

III. 堂의 形態

1. 堂神의 神體

(1) 神木型

‘神靈이 깃드는 곳’ 또는 ‘신의 몸’을 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대부분의 당에는 ‘폭낭’ 또는 ‘검포낭’이라는 오래된 古木이 있다. 이 나무는 ‘천년 솔낭 만년 폭낭’이라 하여 萬年을 자라는 나무다. 이 신당의 나무는 ‘당나무’ 또는 神木이며, 신의 下降路, 신이 머무는 곳, 또는 신 자체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 밑에 제단이 있고, 울타리가 둘러진 당을 神木型이라 한다. 이러한 당은 가장 오래된 古型의 당이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당이다. 나무가 神體이므로 나무에는 紙錢·物色·명실(命絲) 등이 걸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2) 神穴型

신이 머무는 곳이 커다란 바위굴이나 암석 窟라 생각하고 그곳에 제단을 설비하는 경우다. ‘굴’이나 ‘窟’을 신의 몸으로 삼는 까닭은 堂神이 蛇神으로 생각한 때문이기도 하고,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地中湧出 觀念의 표현이다. 구좌읍 동김녕리의 <케너깃당>, 서귀포시 중문동의 <드람지케당>, 제주시 오려동의 <도노밋당>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당신들은 모두 山神이다.

(3) 神石型(彌勒型)

神體가 하나의 커다란 자연석이거나 바다 밑에서 주워 온 미륵들이라 생각하고 모시는 경우다. 실제로 미륵의 형상을 한 돌을 모시고, 그 돌을 중심으로 제단을 꾸미고 울타리를 두른 당이다. 제주시 화북동 <윤동지영감당>은 바다에서 주워 온 ‘미륵돌’을 종이로 싸서 모시고, 제주시 동광양의 <물항망당>에는 彌勒의 石像을 세우고 있다. 또 구좌읍 서김녕리의 <서문하르방당>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동물의 형상을 한 돌을 모시고 있는데, 이 돌을 ‘미륵돌’이라 하여 神體로 모시고 있다. 함덕리 <서물당>은 바다에서 주워 온 ‘미륵돌’을 묻고, 그 위에 제단을 만들었으며, 조천읍 외산리의 <불뚝당>은 넓고 큰 반석을 ‘析子石’을 안에 둔 채 당집을 지어 모신다. 이러한 堂은 堂信仰이 원초적 미륵신앙과의 관련을 시사해 준다. 특히 彌勒信仰은 析子信仰의 형태로 나타난다.

(4) 神衣·神物型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현씨일월당>에는 堂神의 神體라고 생각되는 神木에다 예쁜 치마를 입혀 놓고 있다. 구좌읍 하도리 <여씨불돛당>에는 堂神의 머리타래라며 땅은 머리채를 상자에 놓아두고, 그 상자를 神體라 하여 당집 안에 모시고 있다.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의 본향당에는 이 堂의 下位神으로 모시고 있는 ‘문씨영감’이 어렸을 때 쓰던 것이라 하며, 자그마한 것을 제단 앞 상자에 넣어 모시다가 당굿을 할 때마다 이 것을 꺼내어 춤을 추며 흔들며 놀린다. <현씨일월당>은 나무에 옷을 입히으로써 나무는 神體가 되고 나무에 입힌 옷을 神의 衣裳이 되어 살아 있는 처녀신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5) 神像型

신을 모시기 위하여 당집을 만들고, 당집 안에 나무로 깎아 만든 神像을 제단 앞에 모시고 있는 당이다. 살아 있는 神木을 神體로 하고 울타리가 둘러 있는 堂이 最古型·自然型의 신당이라면, 당굿을 하기 위하여 당집을 짓고, 당집안에 살아 있는 神木 대신 나무로 조각한 神像을 모시고 神體로 삼은 堂은 그 後代의 당일 것이다. 살아 있는 神木 대신에 조각한 神像을 神體로 삼은 神像型의 堂은 古칭을 마련하고 堂宇型의 당이기도 하다. 서귀포시 예래당 <보름당>, 표선면 성읍2리 <구렁팍당>, 그리고 성산읍 수산리 <올똥나무하로산당>은 堂宇型이며, 당집 안에 나무로 깎아 만든 神像을 모시고 있다.

(6) 位牌型

당집이 있는 堂宇型 당은 더욱 현대화하여, 神像 대신에 <本郷之神 神位> <土地之神 神位>라는 신의 이름을 새긴 位牌를 제단 앞에 세워 놓은 당이 있다. 그리고 神木없이 울타리만 둘러 있는 海神堂에는 ‘海神之位’라는 신명이 새겨진 비석을 세워 놓고 있다. 애월읍 애월리의 <해신당>, 제주시 건입동의 <칠머릿당>, 제주시 화북동의 <海神祠> 등 海神堂이 그러하며, 표선면 세화리, 서산읍 신평리, 삼달리, 온평리 등 堂宇型 本郷堂도 位牌로 모시고 있는 堂이다.

2. 堂의 裝飾

(1) 紙錢

紙錢은 저승 돈이다. 굿을 할 때 보면, ‘저승 돈은 紙錢, 이승 돈은 金錢’이라 한다. 마을 사람들이 당에 가면, 창호지를 오려 구멍을 일정하게 뚫은 종이를 나무에 걸어 놓고 온다. 자연 속에 신의 몸이라는 神木에다 정성의 다발을 걸어 두었으니, 정성을 드린 만큼 마음은 풍부하고 풍요로운 것이다. 紙錢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지만, 그냥 백지를 걸어 놓은 것이 있다. 이 白紙는 저승 돈이 아닌 ‘백소지권장’이다. 백소지권장은 글을 모르는 사람의 말뭇할 사연을 신에게 아뢰는 솟장의 一種이다.

(2) 物色

物色은 지전과 좀 다르다. 물색이라 하면 ‘三色 物色’을 말하며, ‘고운 物色’을 연상한다. 物色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옷감이다. 사냥을 하는 거친 男神이 좌정하고 있는 당에는 고운 물색이 걸리지 않는다. 깨끗하고 고운 女神을 모신 당, 주로 丑日堂이나 七日堂 계통의 産育·農耕神의 堂에 고운 물색이 걸린다. 堂宇型의 당이나 堂宇型은 아니더라도 神衣를 담은 靄를 제단 앞에 자그맣게 집으로 지어 놓은 당에는 직접 옷감으로 고운 한복을 지어 바치며, 그러한 신의 옷들은 차곡 차곡 靄를 제단 앞에 자그맣게 집으로 지어 놓은 당에는 직접 옷감으로 고운 한복을 지어 바치며, 그러한 신의 옷들은 차곡차곡 靄 속에 걸어 놓았다가 神衣淸掃祭라고 하는 <마블림제>때 꺼내어 말린다.

(3) 명실

명실(命絲)은 실타래를 지전이나 물색과 함께 神木에 걸어놓은 것이다. 삼승할망(産育神) 비움을 할 때나 아기를 위한 祈子儀禮에 명실을 올린다. 이는 ‘실처럼 길게 명을 이어달라’는 類感呪術이다. 때문에 명실이 걸려있는 당은 아기를 보살펴 주는 당, 생명을 이어주는 산육·치병신의 당이다. 주로 <일뤼할망당>이 많다. 명실이 걸려 있다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생명을 이어 주십시오’하고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3. 堂의 構造物

(1) 祭壇

당굿을 하게 되면, 단골 신앙민들은 대바구니에 堂에 모신 神位의 數대로 麥밥을 뜨고, 쌀 1~2 보시기, 생선 한 마리, 과일 2~3개, 소주 1병, 삶은 계란 2~3개, 돌래떡(납작하고 둥그런 쌀떡)등을 祭壇에 진열한다. 祭壇은 단골이 가지고 온 제물을 진열하는 곳이다. 댕구덕(대바구니)에서 꺼내어 진열하기도 하지만, 보통 구덕에 담은 채 쌓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단은 神木을 중심으로 구석으로 돌아가며 돌로 쌓아 만들었거나 시멘트로 평탄하게 단을 만든 곳도 있다. 제단 앞이나 귀퉁이에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靄라 하며 세 개가 있다. 이를 상靄·중靄·하靄라 한다. 이 구멍을 덮는 돌은 靄문이다. 그러므로 堂神은 神木을 타고 하강하여 靄 속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靄는 神穴의 축약형태로 볼 수 있다. 굿이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떠서 담아 구멍에 넣는데, 이를 <靄묻음>이라 한다.

(2) 울타리(石垣)

보통 어느 당이나 돌담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있다. 울타리는 聖所와 일터의 境界이며, 신의 의지처요 바람을 막는 방풍석이다. 제주도의 돌담이 다 그렇듯이 별다른 의미는 없지만, 울타리(石垣)는 神界와 人間界(俗界)를 ‘굽 가르는 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儀禮相關物 또는 神話象徵物

(1) 돼지·턱뼈

돼지 턱뼈는 豚肉供養의 증거물이다.

제주시 도두동 '오름허릿당', 한경면 낙천리 '소록낭뚝들당', 구좌읍 월정리 '서당머챌당',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리 '전신당' 주위에는 돼지턱뼈가 널려 있다. 堂神이 돈육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에 갈 때 돼지 턱뼈나 돼지 고기를 제물로 준비한다. 豚肉 식성을 가진 堂神은 주로 도개비, 해신, 일채할망 등이 있다. 제물로 돼지고기를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는 신의 성격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백미떡

쌀로 만든 '백시리·백들래'는 農耕神이 가장 좋아하는 깨끗한 음식이다. 農耕神은 米食神이며, 고기를 먹지 않고 곡물만 대접받는 깨끗한 신이다. 그 중 특히 쌀로 만든 떡을 좋아한다. 제주시 수근동의 궁당에는 하얀 들래떡이 마른 채 제단 위에 놓여 있었다. 쌀떡 만을 좋아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궁당밖에 모신 妾神은 돼지고기를 먹고 쫓겨난 신이다. 肉食을 하는 妾神은 아기일곱을 낳아 기른 產育神이다. 임신하였을 때 돼지고기를 먹은 것 때문에 不淨하다 하여 쫓겨난 신이다. 돼지고기가 產母의 음식이며, 生長, 生育에 필요한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3) 鷄卵

계란은 피부병신 또는 蛇神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鷄卵은 껍질을 벗기면 하얀 살이 나오는 것이므로, 皮膚病神에게 바치는 祭物이다. 이 신에게 계란 3개를 바치면, 皮膚病患者는 계란처럼 껍질을 벗고 하얀 새 살이 나와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呪術 治療이다. 또 계란은 蛇神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굿에서 <토산당신놀림>을 하고 蛇神 '친구아구대명'을 밖으로 쫓을 때는 뱀의 형상을 그리고 쌀과 계란을 싸서 보낸다. 이는 蛇神도 계란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4) 술(祭酒)

술은 영감신(=도개비)이 좋아하는 것이다.

굿을 할 때, 술은 不淨을 가실 때도, 신명을 부릴 때도, 雜鬼雜神을 대접할 때도, 굿의 한 祭次가 끝날 때도 술을 신에게 바친다. 때문에 술은 신을 대접하여 신으로 하여금 '신나라 만나라' 신명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신이 술을 좋아한다. <당본풀이>에 보면, '밥도 장군, 술도 장군'이란 主眼가 많이 나타난다. 술은 신명을 부리는 신의 음식이다. 당에 가 보면 술병이 즐비하다.